채용연계 인턴을 공략하라… 실무경험·정규직전환 기회

대기업 인턴 공채 취준생 관심
현대車, 남부발전 이달 말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최근 열린 2019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대기업들의 하반기 신입 공채가 이어지는 가운데, 실무 경험을 하고 정규직 전환 기회도 얻을 수 있는 채용연계형 인턴 공채에 대한 취준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사람인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한국남부발전, 아시아나항공, 현대백화점그룹 한섬, 현대하이라이프손해사정 등에서 이달 말까지 채용연계형 인턴을 모집한다.

현대자동차는 22일까지 '2019 H-Experrience 인턴사원' 채용 입사 지원서를 접수한다. 모집직무는 수출선적관리, 해외법인 관리 및 지원, 상품운영, 제휴 전략, 사외매체홍보, 제네시스 마케팅, 제네시스 상품기획, 신사업기획·개발, 사업기획 등 다양하다.

학사나 석사 학위 취득자나 2020년 2월 졸업예정자로 TOEIC 스피킹 등 영어회화 성적 보유자면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기획 부문의 경우 비즈니스 영어 가능자를 우대하는 등 부문별 우대사항이 상이하므로 채용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전형 절차는 지원서접수 이후 서류전형, 면접전형, 인턴연구, 최종합격 순으로 진행된다.

한국남부발전은 25일까지 '2019년도 하반기 채용형 인턴사원'을 모집한다. 대졸은 일반(사무, ICT, 기계, 전기, 화학, 토목, 건축 분야), 장애(사무, 기계 분야), 보훈(사무, 화학 분야) 부문에서, 고졸의 경우 기계, 전기 분야에서 채용한다.

학력 및 전공, 연령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다. 취업지원대상자, 저소득층, 비수도권지역인재, 발전소주변지역주민 또는 자녀 등은 우대한다. 서류심사, 필기전형, 면접 전형을 거쳐 합격예정자를 결정하고, 신체검사, 비위면직자 및 신원조회 후 최종 인턴사원 합격자를 가린다. 채용형 인턴사원은 약 5개월 인턴 근무 후 종합성적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아시아나항공은 22일까지 2019년 하반기 항공정비직 인턴사원 채용을 진행한다. 기졸업자 및 2020년 2월 졸업예정자로 국내 정기 TOEIC 성적 소지자면 학력 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항공, 기계, 전기, 산업 공학 및 관련 전공자는 우대한다. 서류전형, 실무면접, 인적성검사, 임원면접, 건강검진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하며, 인턴사원으로 1년 근무 후 소정의 심사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그룹 한섬은 30일까지 2019년 하반기 패션전문직 대졸인턴 공개채용에 나섰다. 모집분야는 우븐디자인, 니트디자인, 상품기획, 소재기획, 칼라기획, 아트기획, VMD다. 지원 자격은 대학교 기졸업자 및 2020년 2월 졸업예정자, 의류, 의상, 패션 등 관련 전공자(복수 및 부전공자 포함)다. 전형절차는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1차면접, 2차면접, 3차면접, 인턴실습 순이며, 인턴평가 우수자는 2019년 하반기 신입사원으로 채용한다.

현대하이라이프손해사정은 23일까지 4급 신입사원 채용연계형 인턴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부문은 손해사정(장기보험)부문이며, 4년제 대학 졸업자면 전공과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하다. 신체손해사정사, 재물손해사정사 자격증 보유자를 우대한다. 서류전형, 1차면접, 인턴 실습 및 인적성 검사, 최종 임원면접을 통해 최종 입사할 합격자를 선발한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상명대, 문화촌 재조명하는 전시회 열어

'서울은 미술관' 대학협력 프로젝트

홍제동 아지트 입구 /상명대학교

상명대학교는 문화예술대학 조형예술학과 학생들이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홍제동 아지트'에서 공공미술 전시회 '홍홍홍'을 오는 29일까지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학생 18명이 참여한 '비트박스 문화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지난 3월 서울시가 공모한 2019년 '서울은 미술관' 대학협력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선정돼 서울 곳곳을 변화시키는 활동에 동참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학생들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상명대 서쪽에 위치한 홍제동과 홍은동 일대를 지칭하는 '문화촌'을 재조명했다. 또 주민 각자의 생활방식과 문화 등으로 벌어진 틈을 프로젝트를 통해 연결하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돼 발전하는 공동체 문화를 실험해 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은 ▲사진(문화촌 출장사진사) ▲다큐멘터리 필름(사잇길) ▲매거진(비트+ㅁ) ▲퍼포먼스(껍질 까는 라디오) ▲전시기획(홍홍홍) 4개 팀으로 활동하면서 4개월 동안 문화촌을 누비며 주민들의 삶을 기록했다.

전시회에서는 프로젝트를 통해 수집된 문화촌의 다양한 모습을 전시와 퍼포먼스 형태로 결과물을 공유한다. 지난 8월 진행한 '껍질 까는 라디오' 주제의 퍼포먼스는 홍제동 유진상가 과일상회 내에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보이는 라디오'라는 매체를 통해 전파하기도 했다.

당시 현장 기록 영상과 '문화촌 출장사진사' 활동을 통해 얻은 사진 작품, 홍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엮는 다큐멘터리 필름, 이 활동들을 엮은 매거진 등이 전시된다. /한용수 기자

웅진씽크빅 '놀이의 발견'… 라한호텔과 MOU

가족 단위 투숙객 공략
가을여행 키즈패키지 선봬

웅진씽크빅 어린이 놀이 플랫폼 '놀이의 발견'이 지난 17일 상암동 웅진씽크빅 키즈플랫폼사업단에서 MOU를 체결했다. /웅진씽크빅

에듀테크 전문기업 웅진씽크빅이 라한호텔 그룹(이하 라한호텔)과 함께 휴양과 키즈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한 놀이 콘텐츠 개발에 나선다.

웅진씽크빅은 어린이 놀이 플랫폼 '놀이의 발견'이 지난 17일 상암동 웅진씽크빅 키즈플랫폼사업단에서 이영훈 키즈플랫폼사업단장과 라한호텔 백상석 영업마케팅 전무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MOU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라한호텔은 경주, 목포, 울산 등 전국 6개 도시 내 지역별 랜드마크 호텔 네트워크를 운영 중이다.

놀이의 발견은 이번 협약을 통해 키즈카페, 테마파크, 지역 공방 프로그램 등 전국 3500여 개 제휴사의 놀이 콘텐츠 뿐 만 아니라, 라한호텔의 객실 숙박 서비스와 결합한 키즈 체험 프로그램을 단독으로 선보일 수 있게 됐다.

라한호텔 백상석 전무는 "놀이의 발견과 진행한 휴양과 키즈 체험 프로그램 연계 여름 프로모션이 많은 고객들에게 사랑받았다"라며 "객실 숙박 서비스와 다양한 가족 체험 콘텐츠를 연계해 고객 만족도 향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웅진씽크빅 키즈플랫폼사업단 이영훈 단장은 "놀이의 발견 이용 고객들에게 보다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제휴를 통해 놀이 콘텐츠 뿐만 아니라 부모와 아이가 편하게 쉬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놀이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순천향대, 축제 뺨치는 동아리박람회 눈길

순천향대가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교내 SRC 향설생활관, 피닉스 광장, 학생회관 일대에서 봉사분야, 교양학술분야 등 45개 동아리, 20개 학과 동아리 참가한 가운데 '2019 동아리 박람회' 일명 '동플리(동아리플레이리스트)'를 성황리에 열어 눈길을 끌었다.

이번 박람회는 ▲공연예술분야인 락밴드 '크레인', 풍물공연 '울림', 버스킹 진행 '큐브'가 ▲체육분야로 태권도 '화랑', 테니스 '파랑새', 주짓수 'HALF'가 ▲종교분야로는 기독교 동아리 CCC 등 ▲봉사분야로는 로타랙트, 해바라기, 굿네이버스 ▲전시창작분야로는 순수미술 '미향', 웹툰그리기 'TOONLAB' ▲교양학술분야에서는 공모전 준비법 '투데이', 화장품 만들기 '팔렛트' 등 총 45개 동아리가 참여하는 성황을 이뤘다.

또, 에너지환경공학과(EOS), 경영학과(스카스), 생명시스템학과(표본반), 빅데이터공학과(Big Future), 임상병리학과(오손도손), 중국학과(다락), 창업동아리(율봄) 등 20개 이상의 학과동아리가 박람회장을 찾은 학생들을 맞이했다. 앞서, 지난 16일 향설생활관 일대에서 선보인 박람회장에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그동안의 동아리 활동을 통해 체득한 학술·문화·예술 등의 창작물을 전시하고 공연을 진행해 관심을 모았다. 단순히 동아리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3일간의 동아리 모습을 학내구성원 뿐만아니라 지역민에게도 대학문화를 공유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다. 한편, 대학에서는 오는 10월 말에 동아리 활동을 결산하고 1년을 마무리하는 'SRC나눔 페스티벌'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손현경 기자 son89@

'DMZ국제영화제' 개막작 중앙대 참여 영화 선정

중앙대는 접경인문학연구단이 제작에 참여한 영화 '사막을 건너 호수를 지나'가 20일 임진각에서 개최되는 '제11회 DMZ국제다큐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사막을 건너 호수를 지나'는 박소현 감독의 작품으로 냉전 마지막 현장의 20대 청년들이 목포에서 출발해 서울역,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베를린까지의 유라시아 대장정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영화다.

접경인문학 연구단 관계자는 "영화의 서사가 한반도의 탈분단 시대를 위한 청년들의 목소리가 생기 있게 담긴 점, 자발적 화해와 공존을 위한 삶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단국대,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공연

오늘 난파음악관 콘서트홀

단국대 성악과가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을 19~20일 난파음악관 콘서트홀에서 선보인다.

공연 시간은 19일 오후 7시, 20일 오후 3시, 7시다. 홍성은 학장을 중심으로 백유진 학과장(성악과), 이영화 교수, 최이순 연출 감독을 비롯해 성악·기악과 교수진이 힘을 모았다.

피가로의 결혼은 18세기 유럽 사회를 풍자한 보마르셰의 희곡을 바탕으로 폰테가 대본을 쓰고 모차르트가 작곡했다. 바람기 많은 백작과 그의 사랑을 되찾으려는 백작부인, 영리한 하인 피가로와 재치있는 하녀 수잔나가 펼치는 아름다운 멜로디가 돋보이는 주옥같은 작품이다. 오랫동안 사랑을 받은 불후의 명작이다.

백유진 학과장은 "재학생 모두에게 솔로 아리아 및 앙상블의 멋진 무대를 제공해주고자 이번 공연을 준비했다"며 "관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리아는 이탈리아어로 부르지만, 대사는 한국어로 불러 쉽고 편하게 감상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한용수 기자